

대학생의 직업인식 발달연구

황매향(黃梅香)* · 김지현(金知賢)** · 유정이(柳定利)***

논문 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직업에 대한 포부 그리고 직업인식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Gottfredson(1981, 1996)에 따르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직업의 이미지가 있으며 그것은 비교적 인생의 초기단계에 형성된다. 이는 두 개의 축(dimension), 즉 직업의 '성별 유형'과 '사회적 지위'로 구성되는 직업인지지도에 의해 확인되고, Lapan과 Jingleleski(1992)는 미국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위의 이론을 검증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수행된 선행연구(유정이, 김지현, 황매향, 2002; 황매향, 김지현, 유정이, 2003)에서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직업세계에 대한 인식이 현실을 잘 반영하기 보다는 혼란한 상태임이 발견되었다. 본 연구는 직업포부 및 직업인식의 발달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대학생들의 직업포부 및 직업인식의 내용을 확인해 본 것이다. 그 결과, 각 직업영역에 대한 포부수준은 남학생들은 보다 남성적인 직업에서 높은 포부수준을 보이고, 여학생들은 보다 여성적인 직업에서 높은 포부수준을 보였다. 그리고 직업의 성별유형 및 직업의 사회적 지위에 근거하여 작성한 직업인지지도에서 직업의 성별유형 및 직업의 사회적 지위에 대해 현실감있는 지각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주제어 : 대학생, 직업포부, 직업인지지도, 직업의 성별유형, 직업의 사회적 지위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 단국대학교 교수

*** 한국청소년상담원 교수

I. 서론

직업지도 운동의 선두주자로 알려져 있는 Parsons(1909)가 특성요인이론을 제안한 이래, 진로상담에서는 개인의 특성(흥미, 적성, 가치 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을 조력해 오고 있다. 이를 위해 자신의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 이해해야 하고, 그러한 자신의 특성에 맞는 직업이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서는 직업의 특성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즉, 직업세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자기이해와 더불어 개인의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진로와 관련된 자기이해와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현실성을 갖게 되고 구체화되는데 이러한 과정이 진로발달과정이다.

진로선택에 있어서 발달적 관점을 수립한 Ginzberg, Ginsburg, Axelrad 및 Herma(1951)와 Super(1984)는 이러한 자신 및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진로 자아개념이라고 명명하였다. 진로 자아개념은 개인이 자신의 진로발달, 선택, 수행 과정에서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나타내며, 진로의사결정의 중요한 지침 또는 준거의 틀이 된다. 진로 자아개념은 생애초기부터 시작하여 청소년기까지 지속적으로 변화·발전한다(Vandiver & Bowman, 1996). 진로 자아개념의 내용에 직업 세계에 대한 인식을 강조하면서 보다 현실성을 갖게 되는 발달 과정을 Gottfredson(1981, 1996)은 직업포부 발달이론으로 체계화하였다.

직업포부 발달의 첫 단계는 3-5세의 시기이며 서열 획득 단계(orientation to size and power)이다. 학령기 직전의 시기는 아동이 대상항상성 개념을 습득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아동들은 키가 큰 사람과 키가 작은 사람, 힘이 센 사람과 힘이 약한 사람 등 외형적인 특징으로 인간의 특성을 이해한다. 동시에 직업을 성인의 역할과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면서 동물이나 동화 속 주인공이 되고 싶다는 말을 더 이상하지 않게 된다. 이 단계를 거치면서 아동은 어른들의 세상이 존재하고 있고, 그 어른들의 세계에서는 직업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다음 단계는 6-8세의 시기로 성역할 획득 단계(orientation to sex role)이다. 이 시기 아동의 인지적 특성은 사물이나 사태를 이분법적으로 지각하고, 모든 것을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동시에 성역할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하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활동이나 옷차림 등의 눈에 보이는 단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단계에서의 직업적 포부도 각자의 성별에 적합한 일이라는 아동의 생각을 반영한다. 성역할 획득 단계를 거치면서 직업은 성역할로서 적합한 직업과 적합하지 않은 직업으로 인식되고, 자신의 성에 적합하지 않은 직업을 자신이 원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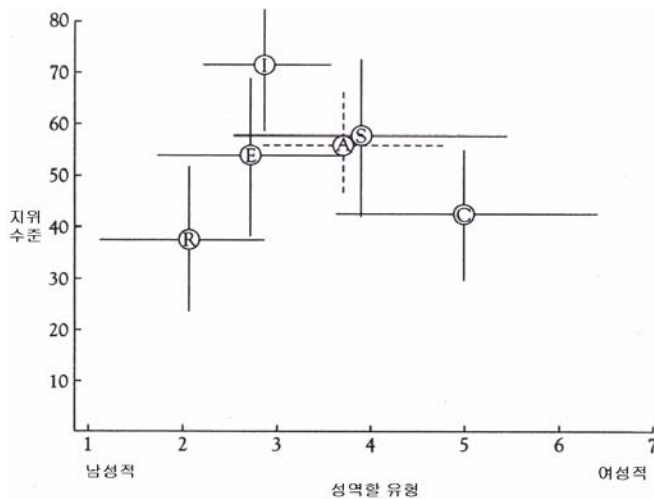
는 직업 목록에서 제외시키게 된다. 예를 들면 남아들은 간호사라는 직업이 여성에게 알맞은 직업이라고 인식하게 되고, 자신이 앞으로 갖고 싶은 직업 목록에서 간호사라는 직업은 제외시킨다.

세번째 단계인 9-13세 시기는 사회적 가치 획득 단계(orientation to social valuation)이다. 이 시기에는 또래를 비롯한 타인의 사회적 평가에 민감해지고, 사회적 계층과 능력과 같은 보다 추상적인 자아개념이 사회적 행동과 기대의 중요한 결정요인이 된다. 9세(초등학교 4학년)가 되면 낮은 사회적 지위를 갖는 직업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사회적 지위가 낮은 직업들을 선호직업 목록에서 제외시킨다. 사회적 가치 획득 단계를 거치면서 아동이 사회적 계층에 관한 자아개념을 갖게 되면, 낮은 사회적 지위의 직업들을 제외시키는 것이다. 또한 이 시기의 아동들은 자신의 능력을 고려해 볼 때 극도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얻기 힘든 직업들도 역시 제외시키기 시작한다. 즉, 자신이 앞으로 가질 직업에 대해 사회적 지위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설정할 수 있게 되어 보다 현실적인 직업적 포부를 형성하게 된다.

14세(중학교 2학년) 경이 되면 직업포부 발달의 마지막 단계인 내적 자아 확립 단계(orientation of the internal, unique self)에 이르고 자아정체감 혼란을 경험하는 시기가 된다. 사회 속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어느 정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청소년들은 자신이 한 개인으로서 누구인가에 관심을 갖게 된다. 보다 내면세계의 목적을 추구하고 성격과 같은 내적 특성에 근거한 자아개념을 확립하면서 남들과는 차별화되는 자신의 독특성에 관심을 갖는다. 이전 발달단계를 통해 사회적으로 자신에게 허용되는 직업 대안의 영역을 확립한 청소년들은 이 발달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신의 흥미, 능력, 가치 등의 내적이고 고유한 자신의 특성들을 보다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자신의 직업선택의 범위를 축소시키게 된다. 앞의 세 단계가 수용하기 힘든 직업 대안들을 제외시켜 나가는 과정인데 비해 이 마지막 단계는 어떤 선택이 가장 선호되고 수용되는 것인지 구체화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발달단계를 거치면서 모든 사람들은 직업에 대한 공통적인 이미지를 갖게 된다. Gottfredson(1981, 1996)은 이것을 직업에 관한 인지지도(the cognitive map of occupations)라고 명명하였다. 이 인지지도는 남성성/여성성, 직업의 지위수준, 일의 영역의 세가지 차원으로 구성된다. 사람들이 어떤 직업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 이 세가지 차원에서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으로 직업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Gottfredson은 직업의 성역할과 지위수준의 두 차원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지지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 인지지도에서 직업의 지위수준은 일의 인지적 복잡성의 정도를 반영하고 있어서, 직업의 지위 차원은 능력의 차원과도 같다(Gottfredson, 1996).

또한 서로 다른 일의 영역에 속하는 직업들은 이 지도에서 서로 다른 무리로 뭉쳐질 수 있고,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Holland의 직업 영역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이 인지지도는



[그림 1] Gottfredson의 직업인지지도

생애 초반기인 유아기에는 잘 형성되어 있지 않지만, 앞에서 살펴본 4번째 발달단계의 청소년이 되면 성인과 동일한 직업에 대한 인지지도로 갖게 된다.

이 지도에 따르면 탐색적 직업 영역에 속하는 직업들은 보다 지위가 높고 남성적인 직업으로 간주된다는 것, 관습적 직업 영역에 속하는 직업들은 보다 지위가 낮고 여성적인 직업으로 간주된다는 것 등을 알 수 있다. 이 인지지도의 일반화 가능성은 Gottfredson이 제안한 이후 Lapan과 Jingleleski(1992)에 의해 경험적으로 입증되기도 하였다. 그들은 미국 8학년(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200개의 직업을 지위별, 성역할별로 9점 Likert 척도로 그 정도를 표시하게 하고, 그 응답내용을 기초로 위의 [그림 1] 형태의 인지지도를 그려본 결과 Gottfredson의 인지지도와 동일한 그림을 얻을 수 있었다. Lapan과 Jingleleski의 연구는 Gottfredson의 직업에 대한 인지지도의 일반화 가능성을 새로운 대상집단에서 입증해 보인 것이다.

Gottfredson(1981, 1996)의 직업포부발달이론의 적용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초등학생(유정이, 김지현, 황매향, 2002) 및 중·고등학생(황매향, 김지현, 유정이, 2003)의 직업포부 및 직업인식 발달 연구가 선행된 바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Gottfredson이 제안한 직업 인지지도의 내용은 미국 직업세계를 반영하고 있고, 직업 인지지도는 개인이 속한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현재 우리나라 직업의 성별 분포 및 사회적 지위 분포를 노동부(2002a) 직업지도(Job Map¹)를 기초로 직업인지지도를 만들고, 이를 우리나라 초·중·고등학

1) Job Map은 2001년 실시된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결과로서 194개 산업과 389개 직업별로 자세한 임금, 종사자수, 남녀비율, 근속년수 등 자세한 노동시장 정보를 볼 수 있다.

생들의 직업 인식 발달의 준거로 함께 사용하였다. 중·고등학생이란 14~19세의 연령으로 Gottfredson의 이론에 의하면, 진로발달과정에서 진로선택의 외적 기준이 되는 직업의 성별 유형에 대한 인식과 직업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개념발달이 마무리 된 단계이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들은 남성들은 주로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여성들은 주로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가에 관한 직업의 성역할에 대해 현실적인 지각을 가지고 있었다. Gottfredson에 의하면 직업의 성역할에 대한 개념은 만8세 정도에 형성되는데, 본 연구에 참여한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의 청소년들은 모두 직업세계에서의 성역할에 대해 공통된 지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직업의 사회적 지위 측면에 대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인식은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Gottfredson을 비롯한 미국의 연구에서는 만13세 경이면 직업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지각이 형성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이 연령이 증가하면서, 그리고 남녀에 따라 달라지고는 있지만, 그 변화의 방향이 실제 직업세계의 지위 서열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었다. 즉,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직업의 사회적 지위에 대해 현실적인 인식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러한 원인이 직업인식의 발달과정이 고등학교 이후시기까지 늦춰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본 연구에 착수하게 되었다. 고등학교까지 지나친 입시위주 교육으로 자기 자신과 환경에 대한 탐색을 충분히 하지 못한 청소년들이 대학에 와서 그 발달과정을 거치게 될 가능성을 확인해 보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탐구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대학생의 직업에 대한 포부수준은 남녀간 차이가 없을 것이다.
2. 대학생은 직업의 성별유형에 대해 남녀에 상관없이 공통된 개념을 형성할 것이다.
3. 대학생은 직업의 지위수준에 대해 남녀에 상관없이 공통된 개념을 형성할 것이다.
4. 직업지도 연구에서 밝혀진 직업인지지도는 한국의 대학생에게도 일치하게 나타날 것이다.
 - 1) 실제적 유형의 직업은 낮은 지위-남성적 유형으로 나타날 것이다.
 - 2) 탐구적 유형의 직업은 높은 지위-중성적 유형으로 나타날 것이다.
 - 3) 기업적 유형의 직업은 중간 지위-중성적 유형으로 나타날 것이다.
 - 4) 사회적 유형의 직업은 중간 지위-여성적 유형으로 나타날 것이다.
 - 5) 관습적 유형의 직업은 낮은 지위-여성적 유형으로 나타날 것이다.
 - 6) 예술적 유형의 직업은 중간 지위-중성적 유형으로 나타날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국내 대학 3개 학교에 재학 중인 남자 대학생 127명과 여자대학생 81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검사는 교양 강의의 담당 강사 및 교수에 의해 실시되었다.

2. 연구도구

직업에 대한 대학생들의 포부 수준, 직업의 성유형에 대한 지각 및 직업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지각을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자들이 직접 질문지를 제작하였다. 질문지 제작을 위해 청소년 직업흥미검사(노동부, 2000, 2002b)의 71가지 직업 목록을 선택하였다. 여기에서는 실제적 직업(목수, 건설업자, 트럭 운전자, 공장노동자, 경찰관, 엔지니어, 군장성, 방사선기사), 탐구적 직업(물리학자, 화학자, 생물학자, 컴퓨터 프로그래머), 예술적 직업(사진가, 작가, 상업예술가), 사회적 직업(사회복지사, 학교상담자, 초등학교 교사, 간호사), 기업적 직업(경영마케팅 담당자, 판매자, 보험설계사), 관습적 직업(비서, 접대원, 교환수, 은행창구직원, 회계사, 변호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인 질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직업포부 질문

직업포부질문에서는 71개의 제시된 직업에 대해 “장래에 내가 이 직업을 가지고 싶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전혀 가지고 싶지 않다’, ‘가지고 싶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가지고 싶은 편이다’, ‘매우 가지고 싶다’의 5점 척도로 표시하게 하였다.

2) 직업지위 질문

직업지위 질문에서는 제시된 71개의 직업에 대해 “사람들이 이 직업을 가진 사람을 존경하는 정도”를 판단하여 ‘전혀 존경하지 않는다’, ‘존경하지 않는 편이다’, ‘그저 그렇다’, ‘존경하는 편이다’, ‘매우 존경한다’의 5점 척도로 표시하게 하였다.

3) 남성여성 직업질문

남성여성 직업질문에서는 제시된 71개의 직업에 대해 “이 직업이 전통적으로 남자·여자들의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정도”를 판단하여 ‘매우 남성적이다’, ‘남성적인 편이다’, ‘그저 그렇다’, ‘여성적인 편이다’, ‘매우 여성적이다’의 5점 척도로 표시하게 하였다.

3. 분석방법

학생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직업 71개에 대해서 희망 정도, 성별유형, 지위수준을 각각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직업포부, 직업의 성유형, 직업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남학생과 여학생들이 얼마나 일치된 지각을 하고 있는지 밝히기 위해 평균에 대한 차이 검증 및 상호상관 계수를 계산하였다.

각 직업군의 남녀학생들의 평균점을 $X(\text{성별유형}) * Y(\text{지위수준})$ 의 그래프 상에 표시하고 그 분포가 노동부(2002a)의 직업지도와 일치하는지를 평가하였다. 남녀학생 각각에 대해서 직업의 군집이 일치하는지를 평가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직업에 대한 포부수준

각 직업에 따른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의 포부수준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Holland(1997)의 직업 유형별 남녀학생의 포부수준을 분석한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실제적 유형의 직업과 탐구적 유형의 직업에 대해서는 남학생이 높은 포부를 나타낸 반면 사회적 유형의 직업에 대해서는 여학생의 포부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직업에 대한 포부수준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던 초등학생의 경우(유정이, 김지현, 황매향, 2002), 모든 직업영역에서 남녀간 차이를 보였던 중학생의 경우, 그리고 예술적, 사회적, 기업적 유형에서 여학생의 우세를 보였던 고등학생의 경우(황매향, 김지현, 유정이, 2003)와 비교했을 때 차이를 보인다. 즉 초등학교 시기에는 모든 직업분야에서 여학생들이 높은 포부수준을 보이다가 중·고등학교 시기에는 사회적, 예술적 영역에서 두드러진 남녀 차이를 보이고, 대학생 시기에는 현실적, 탐구적, 사회적 유형의 직업에서 차이를 보인다. 연령

<표 1> Holland의 직업 유형별 남녀 대학생의 취업 포부 수준

Holland의 직업 유형	남자			여자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R**	127	2.19	0.82	81	1.66	0.64
I*	127	2.37	0.85	81	2.08	0.82
A	127	2.40	0.87	81	2.49	0.85
S*	127	2.49	0.75	81	2.70	0.76
E	127	2.70	0.71	81	2.55	0.60
C	127	2.33	0.78	81	2.44	0.84

* p < .05, ** p < .01

<표 4> 대학생이 인식한 가장 높은 지위의 직업

순위	남학생	여학생
1	의학자	의학자
2	회사경영자	약학자
3	대표이사	대표이사
4	호텔경영자	호텔경영자
5	약학자	회사경영자

이 증가할수록 남학생들의 경우 우리나라 직업세계에서 남성들이 많이 종사하는 직업에 대한 포부가 높고, 여학생들의 경우 우리나라 직업세계에서 여성들이 많이 종사하는 직업에 대한 포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직업의 성유형 및 사회적 지위에 대한 지각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직업의 성별 유형과 지위 수준에 대해 남녀에 상관없이 공통된 개념을 형성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먼저 선정된 71개 직업에 대해 각각 남녀별로 그 성별 유형 점수와 지위 수준 점수의 평균을 구한 다음, 남녀 집단간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대학생들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학생과 여학생간 직업의 지위에 대한 인식의 상관이 .961, 직업의 성별에 대한 인식의 상관은 .955로 높게 나타났다. 즉 남학생과 여학생간 직업의 지위와 성별에 대해 매우 일치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초등학생 남녀간 성별에 대해서는 .96의 일치도를, 직업지위에 대해서는 .90의 일치도를 보였고, 중학생은 각각 .94, .87로, 그리고 고등학생은 각각 .98과 .86의 일치도를 보였던 것과 비교할 때, 대학생이 되면서 지위에 대한 인식 일치도가 더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표 3>은 대학생 남녀별로 가장 남성적인 혹은 가장 여성적으로 인식한 직업 5개씩을

<표 3> 대학생이 인식한 남성적인 직업과 여성적인 직업

순위	남학생		여학생	
	남성적 직업	여성적 직업	남성적 직업	여성적 직업
1	형사	보모	형사	보모
2	경호원	간병인	경찰관	유치원교사
3	소방관	비서	자동차정비사	비서
4	경찰관	호스피스	소방관	간병인
5	대표이사	보험설계사	경호원	계산원

보여주고 있으며, <표 4>는 남녀 대학생별로 지위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응답한 직업 5개씩을 보여주고 있다.

위의 결과를 통해 볼 때, 본 연구에 참여한 남녀 대학생들은 그들의 성에 관계없이 직업의 성별 유형과 지위 수준에 대해 유사한 개념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노동부(2002a)에서 제시한 우리나라 직업지도에 근거한 실제 우리나라 직업세계의 남성 지배적 직업, 여성 지배적 직업, 높은 지위의 직업과 비교해 보면, 대체로 유사하다.

이런 결과를 초등학생의 연구결과(유정이, 김지현, 황매향, 2002)와 비교할 때 남성적인 직업과 여성적인 직업에 대한 인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지위에 대한 인식은 많은 변화를 보여준다. 즉 초등학생 연구에서 소방관, 경찰관, 형사, 응급구조원을 가장 지위가 높은 직업으로 인식하였던 반면 대학생들은 의사, 경영자들을 높은 지위로 인식하는 등 지위가 높다는 것들 “힘” 기준에서 “사회경제적 지위” 기준으로 인식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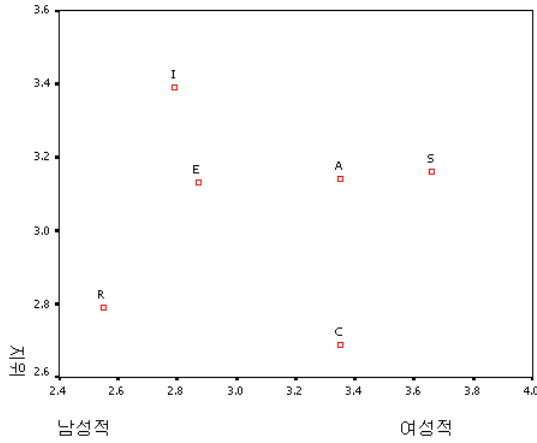
3. 직업인지지도

대학생들이 각각 개별 직업의 성별 유형과 지위 수준에 대해 남녀에 상관없이 공통된 개념을 형성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학생들의 직업 인식을 직업인지지도에 나타내 봄으로써 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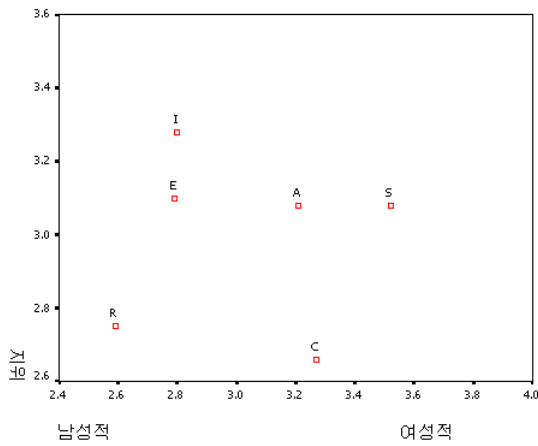
<표 2> 직업의 성별 유형 점수와 지위 수준 점수의 남녀 집단간 상관관계

	지위 (남자)	지위 (여자)	성별 (남자)	성별 (여자)
지위 (남자)	1.00	.961**	.416**	.262*
지위 (여자)		1.00	.360**	.214
성별 (남자)			1.00	.955**
성별 (여자)				1.00

* p < .05, ** p<.01



[그림 2] 대학생이 인식한 직업의 지위수준과 성별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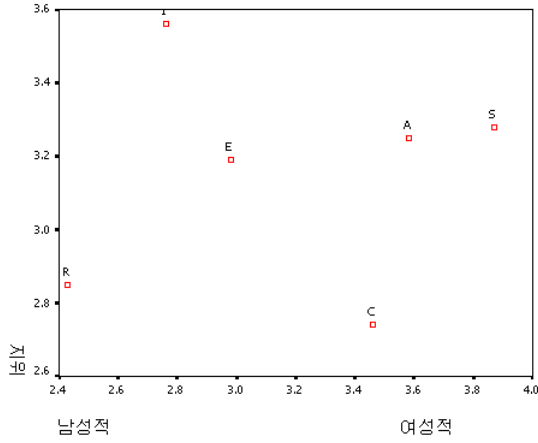


[그림 3] 남자 대학생이 인식한 직업의 지위수준과 성별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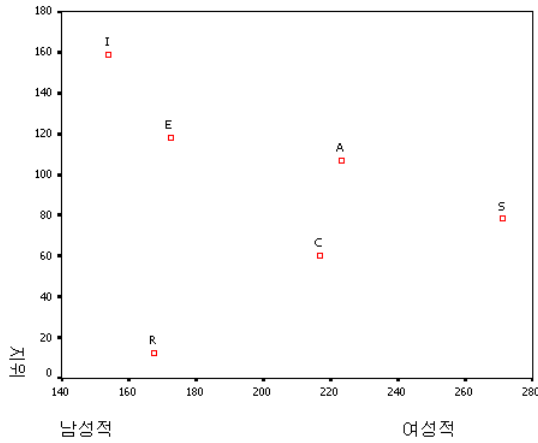
수 있다. Holland의 6개 직업 유형으로 나타난 대학생의 직업인지지도는 [그림 2], [그림 3], [그림 4]와 같이 나타났다. 이를 [그림 5]의 우리나라 직업지도와 비교하여 대학생들의 직업인식이 어느 정도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각 직업의 성역할 유형에 대한 대학생의 지각을 살펴보면, 실재적 유형(R)-탐구적 유형(I)-기업적 유형(E)-관습적 유형(C)-예술적 유형(A)-사회적 유형(S)의 순서로 여성적인 직업으로 인식하였다. R-I-E-C-A-S의 순서는 이미 초등학생들의 직업인지도에서 일치되게 발견된 바 있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일치하게 나타났다. 즉, 직업의 성역할에 대한 개념은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에 형성되고 발달과정을 통해 계속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직업의 지위에 관한 인식은 학령과 성별에 따라 꾸준히 변화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학생들의 직업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지각 연구결과에서는 탐구적 유형(I)-사회적 유형(S)-기업적 유형(E)-예술적 유형(A)-실재적 유형(R)-관습적 유형(C)의 순서로 직업의 지위가 높은 것으로 인식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림 4] 여자 대학생이 인식한 직업의 지위수준과 성별유형



[그림 5] 노동부(2002a) 자료에 근거한 한국의 직업지도

선행 연구결과에서 초등학생의 경우, 남학생과 여학생이 모두 사회적 유형(S)를 가장 높은 지위로 보고, 기업적 유형(E)의 직업을 가장 지위가 낮은 직업으로 인식하였다. 중학생의 경우는 남학생은 탐구적 직업(I)을 여학생은 사회적 직업(S)을 가장 지위가 높은 것으로 인식하였던 반면, 고등학생의 경우는 남학생의 경우 사회적 직업(S)을 그리고 여학생은 탐구적 직업

(I)을 가장 높은 지위로 인식하였으며 중고남녀 학생 모두 관습적 유형(C)의 직업을 가장 낮은 지위로 인식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직업인식에 관한 발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직업의 지위면에서 사회적 유형(S)의 직업을 가장 높은 지위로 인식하다가 점차 사회적 유형(S)의 상대적 지위를 낮게 지각하는 변화를 보인다. 반면 가장 낮게 인식했던 기업적 유형(E)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상대적 지위가 높은 것으로 인식하는 변화를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들은 그 지위의 순서가 노동부(2002a) 직업지도와 비교해 볼 때 실제 직업들의 사회적 지위와 유사성이 깊어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보면, 학령이 높아질수록 남녀간 직업의 인식에 대한 상관관계는 높아지고,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직업에 대한 인식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대학생에 이르러 직업에 대한 인식은 정착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학생들이 지각하고 있는 직업의 사회적 지위와 실제 직업세계에서의 직업 지위 및 Goffredson(1996)이 제안한 직업 지위와 비교해 보면, 중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보다는 현실적인 직업세계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학생들의 직업지도는 노동부 직업지도와 더 유사하고, 여학생들의 직업지도는 미국의 직업지도와 더 유사하다. 또한 직업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고, 본 연구결과로 현실세계와 보다 근접한 방향으로 발달하고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표 5> 초·중·고·대학생의 직업지위 인식 비교

		지위가 높은 코드 -----지위가 낮은 코드
초등학생	전체	S-I-A-R-C-E
	남자	S-I-A-R-C-E
	여자	S-I-R-C-A-E
중학생	전체	I-S-R-A-E-C
	남자	I-S-R-E-A-C
	여자	S-I-A-E-R-C
고교생	전체	I-S-A-E-R-C
	남자	S-I-R-E-A-C
	여자	I-A-S-E-R-C
대학생	전체	I-S-A-E-R-C
	남자	I-E-S-A-R-C
	여자	I-S-A-E-R-C
노동부 직업지도		I-E-A-S-C-R
미국의 직업지도		I-S-A-E-C-R

IV. 논의

Gottfredson(1981, 1996)은 직업포부 발달이론을 통해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가지는 직업의 이미지가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자신에게 어울리는 직업의 선택가능영역을 구체화하고 좁혀나감으로서 최종적인 선택에 이른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 과정을 서열획득단계, 성역할 획득단계, 사회적 가치 획득단계, 그리고 내적인 자아획득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 단계를 통해 형성된 직업의 인지지도는 남성성/여성성, 직업의 지위수준, 일의 영역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다. 이와 같은 Gottfredson이 제안한 진로발달 과정이 우리나라 청소년의 진로 발달에서도 나타나는지를 검증해 본 선행연구(유정이, 김지현, 황매향, 2002; 황매향, 김지현, 유정이, 2003)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경우 성역할 획득단계를 거친 이후 사회적 가치 획득 단계에 정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진로포부 역시 안정적으로 발달하는 모습을 발견하기 보다는 다소 혼란스러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교까지 지나친 입시위주 교육으로 인해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이나 외부세계에 대한 탐색의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한 청소년들이 진로발달면에서 그 시기가 늦어지고 있을 가능성에 기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학생들의 직업포부 및 직업인식은 보다 개인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현실적일 수 있고, 이러한 가정 아래 본 연구가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와 그 시사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직업포부는 자신의 남성적 특성 및 여성적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남성들이 많이 종사하는 실재적 유형(R)과 탐구적 유형(I)의 직업들에 대해서는 남학생들이 더 높은 직업포부를 보였고, 여성들이 많이 종사하는 사회적 유형(S)의 직업들에 대해서는 여학생들이 더 높은 직업포부를 보였다. 이는 모든 직업에서 여학생의 직업포부가 높던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 그리고 6가지 모든 영역에서 직업포부의 남녀차이를 보였던 중학생들보다 현실을 더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남성들은 주로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여성들은 주로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가에 관한 직업의 성역할에 대해서는 초등학생들부터 일관되게 현실적인 지각(실제 노동시장의 여성인력 비율의 서열과도 거의 일치)을 가지고 있었고, 대학생들에게서도 여전히 직업의 성유형에 대한 현실적 지각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성역할에 대한 개념은 만8세 정도에 형성된다는 Gottfredson(1996)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셋째, 직업의 사회적 지위 측면에 대한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인식은 대체로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Gottfredson을 비롯한 미국의 연구에서는 중학생 정도면 직업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지각이 형성된다고 하지만(예, Lapan & Jingeleski, 1992; Parker et al., 1995),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직업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이 연령이 증가하면서, 그리고 남녀에 따라 달라지고는 있지만, 그 변화의 방향이 실제 직업세계의 지위 서열에 부합하는 것은 대학생 시기에 이르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대학생이 되어서야 직업의 사회적 지위에 대해 현실적인 인식을 갖게 된다는 사실은 진로지도 및 진로상담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아직 직업의 사회적 서열에 대한 개념도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경우, 자신의 흥미나 가치관 또는 적성들을 직업 포부에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보다 쉽게 지각될 수 있는 외부세계에 대한 이해가 자기 자신의 내부세계에 대한 이해보다 선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진로상담 프로그램의 전형적인 구성인 ‘자기탐색→직업탐색→의사결정→준비행동’의 활동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앞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상담 프로그램에서는 청소년의 현재 발달 단계를 확인하고, 그 단계에 맞는 활동으로 프로그램 내용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진로 또는 직업 선택 과정보다 직업세계에 대한 보다 체험적이고 전반적인 이해나 일(직업)의 대한 올바른 가치 및 태도 형성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고등학생들의 진로지도를 촉진하는 ‘진로’ 교과에서도 직업의 사회적 지위, 그 분배의 원리와 변화의 원리 등을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대학생들을 위한 진로지도 내용에도 직업세계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폭넓은 이해를 촉진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여러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결과의 현실 적용에 있어서 주의를 요한다. 먼저, 본 연구에 포함된 연구대상은 발달 현상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하기에 제한점이 있다. 연령집단을 대학생집단으로 설정함으로써 연구대상 내 연령변인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 각 연령집단의 특성을 골고루 반영할 수 있는 유층표집을 적용하지 못한 점 등이다. 또한 청소년들이 가진 직업인식과 각자의 직업포부 내용의 관련성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진로상담 실제에 보다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관련성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노동부 (2000). 청소년용 직업흥미검사. 서울: 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 노동부 (2002a).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서울: 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 노동부 (2002b). 청소년용 직업흥미검사 사용자가이드. 서울: 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 유정이 · 김지현 · 황매향 (2002). 초등학생 직업포부 및 인식의 발달에 관한 연구. *진로교육연구*, 15(2), 1~17.
- 황매향 · 김지현 · 유정이 (2003). 중고등학생의 직업인식 발달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1(1), 3-12.
- Ginzberg, E., Ginsburg, S. W., Axelrad, S., & Herma, J. L. (1951). *Occupational choic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Gottfredson, L. S. (1981).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A developmental theory of occupational aspira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6), 545-579.
- Gottfredson, L. S. (1996). Gottfredson's theory of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In D. Brown & L. Brooks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3rd ed., pp. 179-232), San Francisco: Jossey-Bass.
- Gottfredson, L. S. & Lapan, R. T. (1997). Assessing gender-based circumscription of occupational aspiration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5(4), 419-441.
- Holland, J. L. (1997). *Making vocational choices: A theory of vocational personalities and work environments* (3rd ed).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Lapan, R. T. & Jingeleski, J. (1992). Circumscribing vocational aspirations in junior high schoo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1), 81-90.
- Parker, H. J., Cunningham, J., Chan, F., Thomas, K. R., Kaskel, L. M., & Kates, D. (1995). *The School Counselor*, 43, 19-28.
- Parsons, F. (1909). *Choosnig a vocation*. Boston: Houghton Mifflin.
- Super, D. E. (1984). Career and life development. In D. Brown, L. Brooks, & Associate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pp. 192-234). San Francisco: Jossey-Bass.
- Vandiver, B. J. & Bowman, S. L. (1996). A schematic reconceptualization and application of Gottfredson's model. In M. L. Savickas & W. B. Walsh (Eds.), *Handbook of career counseling theory and practice* (pp. 155-168).

Palo Alto: Davies-Black.

* 논문접수 2004년 1월 22일/ 1차 심사 2004년 2월 3일 /2차 심사 2004년 2월 18일

* 황매향: 서울대학교 약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재직하고 있다. 주요저서로는 「청소년 발달문제와 상담」, 「청소년 학업상담」, 「상담과 심리검사」 등이 있다.

* e-mail: maehyang@kut.ac.kr

* 김지현: 서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University of Connecticut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단국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다. 주요저서로는 「청소년 발달문제와 상담」 이 있다.

* e-mail: mongsanga@dankook.ac.kr

* 유정이: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상담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저서로는 「건강한 상담자만이 남을 도울 수 있다」, 「청소년 발달문제와 상담」, 「1분이면 마음이 열립니다」 등이 있다.

* e-mail: greensea@kyci.or.kr

Abstract

Career Aspirations and Perceptions of Korea Undergraduates

Hwang, Mae-hyang*·Kim, Ji-Hyeon**·Ryu, Jeong-Yi***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career development of Korean adolescents by examining 208 college students'(127 male students and 81 female students from three different universities) career aspiration, the orientation to occupational sex role, and the orientation to prestige of occupations. Korean college students were expected to have the cognitive occupational map which is congruent with the Korean Job Map based on the 2001 Korean labor market. The responses of 208 Korean students inform the sex difference in the career aspiration. Boys have higher aspirations than girls in Realistic and Investigative occupations while girls have higher aspirations than boys in Social occupations in terms of Holland occupational types. The two-dimensional occupational map(Sex type by Prestige level) suggests a) Korea undergraduates have similar images of sex type of occupations with the Korean Job Map and b) they have similar images of the prestige level of occupations with the Korean Job Map. The uniqueness of Korean adolescents' career development and the cultural validity of Gottfredson's career development theory are discussed based on this research result and the previous research findings.

key word: career development, job map, sex-type of occupation, prestige of occupation

*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Education

** Dankook University

*** Korea Youth Counseling Institute